

621장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 (2)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581장 -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 (1)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 받아 살게 하소서
- (2)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 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 (3)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 담당

6/23(월)	6/24(화)	6/25(수)	6/26(목)	6/27(금)	6/28(토)
이준배	최병호2	조병훈1	조승호2	백운성	전해용
안수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재적안수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2025년 6월 25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윤지옥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송 621장	다	함	께
기도	조병훈1	안수집사	
성경봉독 히브리서 13장 3절	인	도	자
찬양 믿음으로 갑니다	새	벽	찬양대
 믿음계승(3)			
설교 간힌 자를 생각합시다!	윤지옥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송 581장	다	함	께
축도	설	교	자

오늘의 말씀 < 히13:3 >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참고의 말씀

□ 시33:10~11

- 10)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 11) 여호와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 시33:17~20

- 17)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 18) 여호와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 19)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 20)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 겔36:35~37

- 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 36) ...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라
- 37) ...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5년 6월 25일(수)

하나님! 수요일 이른아침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계승(3) - 갇힌 자를 생각합시다!(히13:3)』라는 말씀을 통해,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남북 평화통일을 고대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어서 속히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몰수 당하고 학대 받으며 감옥에 갇힐 때, 학대를 받지 않았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도움의 방법들을 강구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반도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이 학대를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 날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왔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3대 독재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온과 그를 추종하는 공산세력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자복(自服)하게 하옵소서. 공산세력에 의해 유린당한 인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황폐한 북한 땅이 에덴동산 같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6·25전쟁을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복침이었다고 왜곡하는 ‘주사파’ (주체사상파)와 ‘종북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와해되게 하시고,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침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지켜낸 자유와 평화를 다음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계승하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평화의 사도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직 예수! 더욱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